

살아보고 귀농하는 '체류형 센터' 호평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이 6년째 운영중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예비 귀농·귀촌인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센터 입소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거주하며 체계적인 영농 기술 교육을 받고 현장 실습을 하면서 고창 살이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

고창은 2007년 전라북도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영농 정착금·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소규모 귀농 귀촌 기반조성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부터는 귀농해서 창업을 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자부담 이자 1%를 3년간 균비로 추가 이차보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 체험학교 등 4개 분야 24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현승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 4곳 묶어 공동 보육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가 원도심 국공립 어린이집 4곳을 묶어 공동 보육하는 공유 어린이집 '구슬모음 어린이집'과 365일 24시간제 보육 사업으로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보육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54억원 증가한 1037억원이다. 시는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보육

교직원 특별격려수당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 은행 운영을 통해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숲속의 진주, 도래새미공원, 물초울공원, 진양호 가족공원 등도 운영 중이다.

이런 정책을 발판으로 올해 상반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다는 목표다. 이현승 기자



기업 잇달아 투자... 일류 경제도시 도약

대전광역시

대전시가 과학수도 넘어서 배터리, 바이오 기업이 모여드는 일류 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유성구 교촌동 일원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 2030년까지 3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일자리 3만5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가산단은 나노·반도체를 비롯한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미래 핵심 전략산업의 전초기지로 구축될 예정이다.

국내의 기업들은 잇달아 대전에 투자하고 있다. SK온이 2025년까지 총 4700억원을 투자해 연구원 시설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와 글로벌 품질관리센터를 신설한다.

독일 제약사 머크는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 시설을 대전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현승 기자



2025 APEC 유치 총력... 국제회의도시 우뚝

경주시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천년고도 경주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총력을 벌이고 있다. 개최 장소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세계 유산을 보유한 경주가 적합하다고 시는 강조한다. 그동안 세계물포럼, 세계원자력국제대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을 발판삼아 국제회의도시라는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포부다.

경주는 2015년 개관한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보문관광단지 일대가 작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됐다.

지방 중소도시로는 드물게 예산 2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고 신(新)형산강 프로젝트 등 굵직한 정부 공모사업을 따내는 성과를 냈다. 이학준 기자



반도체 생태계 1362만㎡... 산업 중심지로

용인특례시

정부가 3월 용인 이동·남사 지역을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생태계 면적이 1362만㎡(약 410만평)에 이를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 용인플랫 품티티부터 삼성반도체 기흥캠퍼스, 원삼면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있다.

입주한 기업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직장인들이 인근 상권에서 소비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상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화성 봉담읍에서 중부고속도로를 잇는 73km의 고속도로와 국지도 57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을 통해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백암 반도체마이스터고(가칭) 설립과 관내 대학에 반도체학과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현승 기자



1년 내내 수준높은 공연... 한예종 유치 추진

과천시

과천시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한예종을 과천시 내 국유지로 이전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천시식정보타운에 입주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

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과천시는 1997년 우리나라 최초로 '거리예술 축제'를 도입했다. 시민들은 1000석 규모 대공연장이 있는 시민회관에서 1년 내내 열리는 수준 높은 공연을 1만~2만원 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감회와 재즈 음악회가 무료로 열리고 아파트 등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도 개최된다. 최효정 기자



역대 최대 수출 달성... K-방산 우수성 알려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의 작년 폴란드·노르웨이·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 방산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 2314억원을 기록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였다.

창원시는 전국 방산 매출의 24%, 수출 25%가 창출되는 곳이다. 국가 지정 방산업체 84개 중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등 16개가

있다. 육군종합정비창,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훈원, 창원산업진흥원 등 국방·방위산업 지원기관은 물론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국방 연구기관들도 창원에 둥지를 텄다.

창원시는 올해 정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방위·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다. 홍인석 기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국의 갯벌' 품은 곳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의 상징인 신안갯벌이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이름으로 고창갯벌·보성-순천갯벌·서천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신안군은 2003년부터 18년간 노력한 끝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국내 두번째 세계자연유산을 품게 됐다.

신안갯벌은 많은 섬과 섬들 사이를

지나는 크고 작은 조수로, 넓은 갯벌이 섬을 둘러싸고 발달했다. 최대 40m 깊이의 팻갯벌과 팻갯벌 위의 특이 모래 퇴적체 등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으로 발표한 적색목록 14종을 포함해 90종, 5만4000 개체 이상의 물새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신안군은 갯벌의 가치를 세계에서 인정 받은 만큼 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이차전지 메카로... 특화단지 유치 정조준

포항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15만톤의 양극재가 생산되는 포항시가 정부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뛰고 있다.

포항은 지난 2017년 에코프로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2019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이차전지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했다.

그동안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GS건설 계열사 에너지머티리얼즈, 중국 CNGR 등으로부터 4조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포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양극소재 전(全) 주기 생태계가 구축된 곳이다.

2030년까지 생산량 100만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실화 된다면 세계 시장 수요의 16% 이상이다. 후방산업인 원료, 전구체 생산 규모까지 합하면 200만톤 이상이다. 김태호 기자

